

# 목숨 건 5·18 수습활동...광주 위해 평생 헌신



**홍남순과 광주, 그리고 5·18**

“(5·18은) 그야말로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시위였고 이는 80만 광주시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다. 광주사태로 구속된 사람들에게 대한 내란죄는 당연히 무죄다.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다섯 명이나 사형 선고를 받고 일곱 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사형이고 무기형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광주사태 폭도 수괴’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홍남순 변호사가 지난 1980년 12월17일 육군고등군법회의 항소심에서 밝힌 최후 진술이다.

당시 그의 나이 70세로 영장에서 펜티만 입고 구타와 고문을 받은 직후였지만, 여전히 청년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당당한 기품을 잃지 않았다고 안성래 전 오월여머니집 관장 등 지인들은 증언한다.

홍남순 변호사의 5·18민중항쟁 관련 활동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1980년 5·18수습위원들과 벌인 ‘죽음의 행진’을 비롯한 일련의 수습위원들과, 이후 희생자 위령탑 건립 모금운동 등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다.

특히 1985년 5·18광주민중혁명 희생자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5·18추진위) 초대 회장을 맡을 당시 당국의 끊임없는 회유와 압박 속에서도 5·18의 성격을 민중혁명이라고 규정하는 등 뜻을 굽히지 않았다.

계엄군의 도청 진압작전 소식을 접한 5월25일 밤 홍 변호사는 지금은 고인이 된 조비오 신부 등 17명과 함께 도청에서 상무대 방향으로 길을 떠난다. 계엄군이 탱크를 밀고 진압작전을 펼치는데 다급한 정보를 입수하고 “더 이상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지 말라”고 진압군 수뇌부와 담판을 지으려고 가는 죽음을 각오한 행진이었다.

## 계엄군 막으려 ‘죽음의 행진’ 광주항쟁 ‘수괴’ 몰려 수감 구타·고문에도 기백 안잃어 위령탑 건립 모금운동 앞장도

광주 시민들의 무고함을 알리며 호소하고, 시민들 세금을 쥐여준 총기를 우리에게 향해도 되느냐며 항의도 했지만 허사였다. 그리고 이튿날인 26일 서울로 가서 계엄군의 만행을 중단시켜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떠나던 찰나 계엄군에 의해 체포돼 1년여간 옥살이를 했다.

1981년 12월 성탄절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이후에는 광주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초대 5·18 추진위원장으로 5·18을 민중혁명으로 규정하고 관제를 배제하고 순수 국민들 성금으로 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하고 추모 및 기념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후 정부 당국의 방해공작과 건강 상의 이유로 추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을 때까지 5·18과 관련된 문제라면 항상 앞장을 섰다.

이런 일도 있었다. 홍 변호사의 지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홍 변호사가 친구인데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가니 걱정을 하고 있다가에 직접 지은 쌀을 가져다주려고 한다”고 말하자 택시기사는 “홍 변호사님 도우시는 일인데 어떻게 택시요금을 받게 느냐”며 공동 자택 앞에 쌀가마를 내려주고 사라진 택시기사의 일화다. “나는 변호사로 먹고 살만하다. 다른 사람이나 도와주라”며 끝까지 5·18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일화도 전해진다.

안성래 전 관장은 “남편(명노근 교수)과 홍 변호사 모두 옥살이를 했을 당시 엄혹했던 1980년 5월에도 공동 자택에서는 군인과 경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인 윤이정 여사와 구속자 석방 문제를 의논할 수 있었다”면서 “너무너무 큰 어른이셨고 항상 선생의 빈자리가 그리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 1980년 5월 5·18민중항쟁 당시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안에서 수습위원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 맨 왼쪽이 홍남순 변호사.



홍남순 변호사가 지난 1983년 사면복권돼 업무를 개시하던 날 광주시 동구 공동 자택으로 5·18 부상자 등 피해자들이 찾아와 축하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 신용카드 재발급시 본인 인증 부실 악용 전직 영업사원이 부정발급 2억원 ‘꿀꺽’

전직 신용카드사 회원 모집인(영업사원)이 지인이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2억원가량을 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붙잡힌 남성이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재발급시에는 본인인증을 하지 않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점을 확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광주서부경찰은 무단수집한 타인의 개인

정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송모(2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모(28)씨 등 5명 앞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도 160회에 걸쳐 1억9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인카드 회사 3곳도 이씨의 사기 행각에 일부 피해를 본 정황이 있다며 피해자로 분류, 조사 중이다.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한 카드업체에서 근무했던 송씨는 회사를 그만둘 때 자신이 모집했던 회원정보를 몰래 빼냈다. 카드 발급 과정에서 회사 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스캔·저장한 후 폐기하도록 돼 있는 각종 서류를 빼돌려 범행을 썼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송씨는 빼돌린 회원정보로 신용카드가 분실된 것처럼 신고했고 새로 발급된 카드는 자신의 집으로 배송시켰다. 실적을 위해 발급한 카드인 만큼 수령 후 폐기하라는 조언을 받은 피해자들은 송씨가 자신을 속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줄은 검거될 때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송씨는 카드 최초 발급과 달리 재

발급 과정에서는 신용카드사들이 엄격하게 회원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맹점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와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도 없이 전화통화만으로 카드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설명이다.

도박에 빠져있던 송씨는 한 번에 400만 원가량을 인출해 쓰는 등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흥청망청 쓴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 일부는 오랜 기간 카드대금이 연체돼 자신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의 범행은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한 피해자의 신고로 실체가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

## ‘떡튀’ 유사 골프회원권 업체 대표 검거

### 광주·전남 400여명 피해 서울수서경찰 입건 조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잠적<광주일보 10월5일자 6면>한 유사 골프회원권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갑작스런 사업 중단으로 광주·전남 400여명 등 전국 4000여명이 수백여원의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수서경찰은 유사 골프회원권 업체인 삼성회원권(에스골프) 대표 김모(45)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 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선불로 가입비를 내면 그린피를 대납해주는 선불 상품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상품 가격은 770만~2310만원 선이다. 이를테면 2310만원짜리 주발권을 끊으면 이 업체를 통해 예약해 연간 91회까지 2년동안 주말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1억원이 넘는 정회원권의 20% 수준의 가격에 정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해 전국적으로 많은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기명 4

인까지 이용할 수 있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진술이다.

김씨는 지난 3일 직원과 회원들에게 업무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이 때문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내고 회원 가입했지만, 더는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광주·전남에서만 400여명에 이르고, 피해규모도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회원이 40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커 김씨를 출구금지하고, 8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이 회사에서 자료를 확보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의 금전 거래와 골프장 예약 내역 등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면 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돈을 가로채려던 것이 아니며 사업 악화로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아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급전 필요한 서민·장애인 피어 대출사기

### 광주서부경찰 2명 영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나 장애인을 속여 제3금융권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천만원을 대출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빼돌린 혐의(사기)로 강모(32)씨와 홍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9월께 지적장애인 최모(42)씨의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1700만원을 대출받아 400만원 건네고 13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지난 10일 김모(55)씨 명의로 대부업체 5곳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려다 은행직원의 보이콧 의심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당일 대출 가능’이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이용해 영세민이나 장애인들을 유인했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빼돌리기도 했다. 강씨 등은 대출금액을 높여려고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자들끼리 연대보증을 쓴 것처럼 조작했다.

경찰은 일당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 강씨 등의 금융거래명세를 추적해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일했던 모텔서 금고 통째 훔쳐 해외여행한 2명 쇠고랑



○수년 전 일했던 모텔서 명품 시계 등이 보관된 금고 통째로 훔쳐 만든 비용으로 국내외여행을 즐긴 일당 2명이 쇠고랑.

○1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38)씨와 B(27)씨는 지난달 6일 새벽 5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몰래 금고(2500만원 상당) 등 모두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보관된 금고 통째로 훔친 혐의.

○A씨와 B씨는 몰래 금고 통째로 훔쳐 만든 비용으로 국내외여행을 즐기던 일당 2명이 쇠고랑.

○1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38)씨와 B(27)씨는 지난달 6일 새벽 5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몰래 금고(2500만원 상당) 등 모두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4억 2500만원
- 보 5천만원에 월세 200만원 보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속 박**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만 있으면,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토지매매, 20억** **경매투자자**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기한 - 10월 31일까지**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